

## 수지첨부 절단의 재접합술

김주성·송금영\*

대구 현대병원 정형외과, 인천 성민병원 정형외과\*

최근에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수술의 술기의 발달로 근위지골이나 중위지골에서의 절단의 경우 90%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원위지 관절이하의 말단부위에서 재접합술은 그 혈관의 크기가 매우 작아 찾기가 봉합에 필요한 혈관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술기를 요하기 때문에 수지의 타 부위에 비해 성공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재접합술 이외의 방법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. 그러나 수지말단부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등으로 최근에는 가능하면 미세수술을 통한 재접합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.

이에 대구 현대병원 정형외과에서 1993년 6월부터 1999년 6월에 걸쳐 원위지관절이하인 수지말단 부위가 절단된 218명의 환자, 274수지를 재접합술을 시행하였다. 환자의 남녀 비율은 남자가 73%였으며, 나이는 20대 29%, 30대 22%로 그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각 수지별 빈도를 보면 인지, 중지, 무명지, 약지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었다. 손상 형태를 보면 local crushing형이나 guillotine 형이 대부분이었다.

제 I형이 109례, 제 II형이 165례였으며 재접합 성공률은 전기(1997.6월까지)에서 I형은 68.2%(28례) 후기(1999.6월까지)에서 76.4%(52례)를 보인다. II형은 전기 76.7%(56례), 후기에 86.9%(80례)의 성공률을 보이며 의료용 거머리를 사용한 후기의 I, II형 160례에서는 82.5%(132례)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.

혈관 문합의 형태를 보면 zone I에서는 정맥의 문합 없이 하나의 동맥만 문합한 경우가 70.6%(77례), zone II에서는 하나의 동맥과 하나의 정맥을 문합한 형태가 129례(78.1%)로 가장 흔하였다.

총 274례 중 216례(78.8%)에서 재접합술을 성공하였으며 (zone I; 80례 73.3%, zone II; 136례 82.4%), 생존된 수지 모두 길이와 손톱이 잘 보존되어 기능 및 미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. 이에 저자들의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